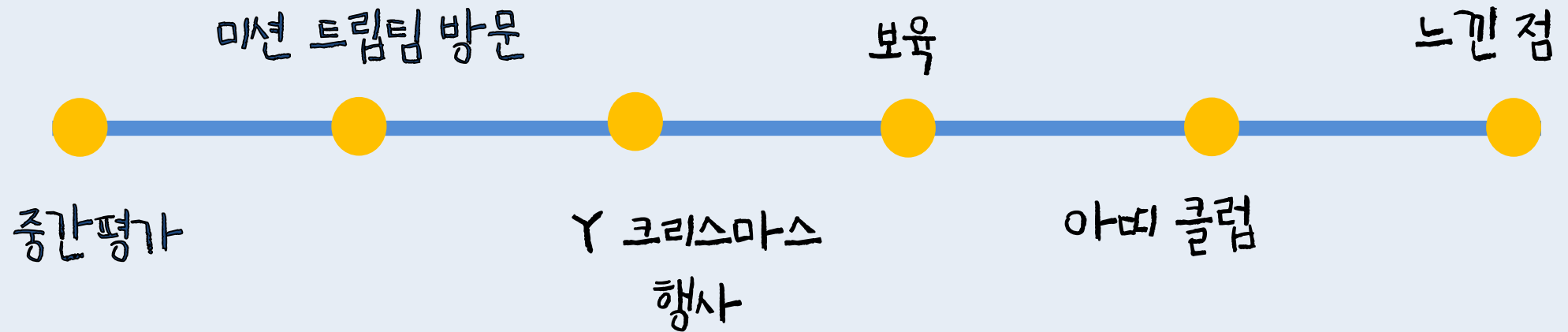


라운아띠 1871 앵마팀



우리의 세 번째 이야기, 미안마에 정신 못 차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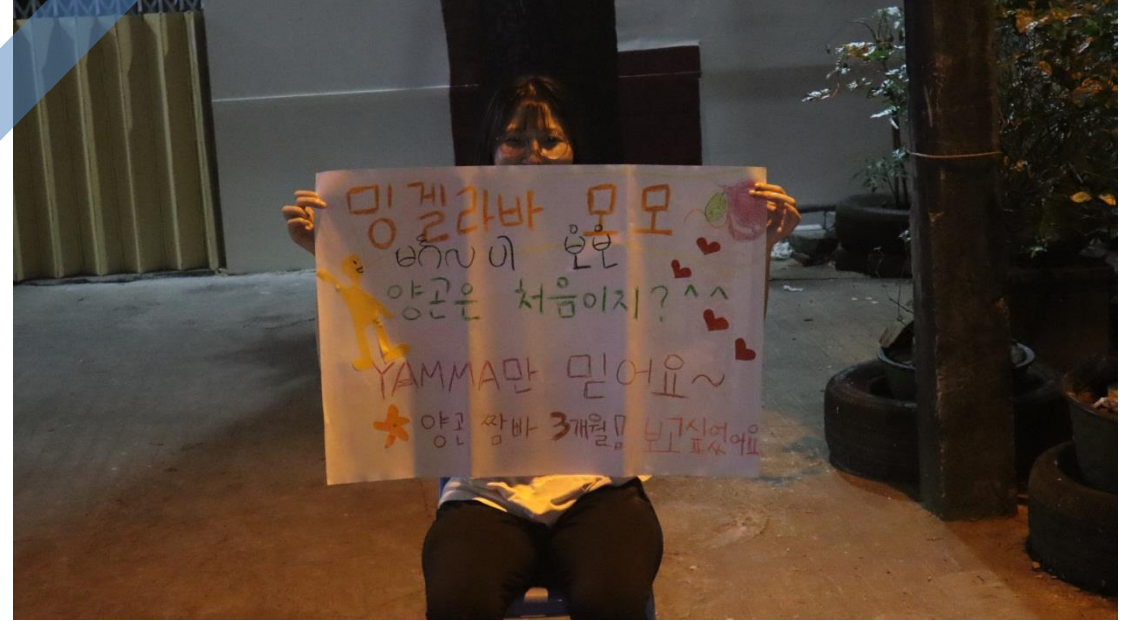
11월 보고서 목차



중간 점검

화진 say

모모 간사님을 시작으로
종희 간사님, 루나 간사님이 오셨다.
차에서 내리는 간사님들을 보니까 짱 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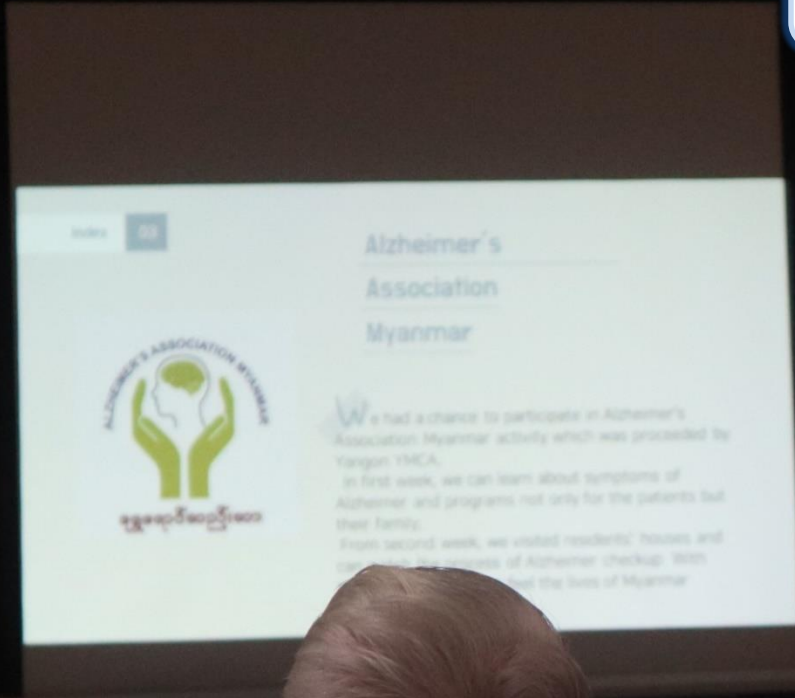
(루나 간사님 오셨을 때 바빠서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쉽다)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힘차게 환영했다. 환영 인사 후에 기운
이 빠져서 다들 방으로 스르륵 가긴 했지만 ^^...!

중간 점검

걱정 반, 긴장 반으로 시작한 중간 점검!

여태 우리가 한 활동을 보여드리는 발표인데 감사님들, Y 이사들, 그리고 한솔 단원까지 와 주셔서 더 긴장했다!

발표가 끝나고 감사님께 들은 말에 마음 한 구석이 쿡쿡 찢리면서도 다 맞는 말이라 싱송생송했다.



중간 점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보면 이곳에서 라온아띠 단원으로서의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다. 내가 이곳에서 잘 지내는 일에만 집중했지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중간 점검 이후로 여태까지의 활동을 돌이켜 봤는데,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개인의 발전에만 몰두했던 것 같다.

생활하면서 보였던 문제들도 깊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서 일부러 더 생각을 안 하기도 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 봐야지 하는데 여전히 어렵다. 남은 기간 동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중간 점검이 끝나고...

화진 say



중간 점검이 끝나고, 간사님들과 양곤을 돌아다녔다.
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대다수다.

제일 먼저 도착했던 모모 간사님과는 아웅산 마켓,
정선 시티를 갔다. 아웅산 마켓과 정선은 틈나면 가
지만 (특히 정선) 이번에 더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
었다. 아웅산 마켓에 코끼리 쟁반이 있었는데, 예뻐
서 간사님 사실 때 같이 샀다. 빨리 한국 가서 풀어보
고 싶다. 과일 담아 먹어야지 ^ ----- ^

간사님들과 정선에서 처음 가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국수도 먹고 간식도 정말 많이 먹었다. 이때 24시간
중 거의 21시간 정도는 쭉 배부른 상태로 보낸 듯.

점검 후 하루-미안마 플라자

한희 say

중간점검이 끝난 후 우리는 간사님들과 활동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맞이했다.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들로 스케줄을 짜서 간사님들과 함께 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2일중 첫날 우리는 미안마 플라자로 향했다.

미안마 플라자에서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서바이벌게임이 애기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것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마음만은 아직 애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방탈출을 하러 갔는데
처음 해보는 방탈출에 설레는 마음도 잠시 안에 구조는 진짜 감옥에 갇힌듯 무시무시했다. 나를 보고 놀라는 치훈이를 보며 더 놀라기도 하고 각자 나갈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서 5개의 단계를 차곡차곡 넘어가 우여곡절 끝에 방에서 나왔는데 나오는 길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손으로 한칸 한칸 만지면서 조심스럽게 나오자 밝은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나온 후 간사님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신 모습을 보면서 짜릿했다



점검 후 하루-관도지 호수

한희 say

미얀마 플라자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떠난 곳은 관도지 호수였다.

가는 길에 택시에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500짖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흥정을 하는 현아의 모습이 재밌었다. 500짖을 줄이는데 실패한 현아는 대신 에어컨을 켜달라고 했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흔쾌히 에어컨을 켜주셨고 그 모습을 보며 현아의 미얀마어 실력에 새삼 놀랐다. 안 하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미얀마 어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

그렇게 관도지 호수에 도착한 우리들은 관도지 호수를 구경했다.

그곳은 그냥 호수였다.

크고 강아지가 정말 많은 호수

그곳을 걸으면서 덥고 강아지가 정말 많구나를 알 수 있었고 더위에 지쳐 카페를 찾아봤지만 카페는 보이지 않아 태양에게 진 우리들은 한 바퀴를 돈 후 바로 쉼다곤 파고다로 향했다.



점검 후 하루-쉐다곤 파고다

한희 say

더위에 지쳐 후다닥 도망치듯 온 쉐다곤 파고다는
해가 저서인지 그렇게 덥진 않았다.
그곳은 현지인은 공짜 외국인은 10000짖 이었는데
현지인인척 들어가보려 했는데 실패해버렸다..
다음에 가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성공해야지
미얀마는 태어난 요일로 성이 정해지는데 쉐다곤 파고다에는
요일별로 동물신이 있어서 각자 태어난 요일에 가서 기도를 한다.
나는 월요일 동물들의 왕인 호랑이였고 다른 요일은 기억이 안 나지만
화진이가 기니피그였던 거랑 토요일이 봉황 같은
독수리 인간이었던 건 인상 깊었다.
쉐다곤 파고다는 들었던 대로 정말 크고
금색으로 반짝반짝한 것이 왜 이곳을 가봐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종교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가 이들의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달이 떠올라서
쉐다곤 파고다 너머로 보이는 초승달은 정말 예뻐고
달이 참 밝네요라는 말이 떠오르는 날이었다.
쉐다곤 파고다를 구경한 후엔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그날 몸이 안좋아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다



미얀마플라자2

한희 say

점검 후 둘째 날 원래는 미얀마 민속촌을 갈 생각이었는데 첫째 날 지치고도 하고 미얀마플라자를 좀더 구경하고 싶었던 우리들은 한번 더 미얀마 플라자를 가기로 했다. 이번엔 알렉스랑 묘지와 함께 미얀마 플라자를 갔는데 함께 알리바바도 가고 카페도 가고 구경도 하고 푹 쉬는 시간을 가졌다. 알리바바에서 나는 드럼치는 게임을 했는데 쉬운건 너무 쉽고 어려운건 너무 어려워서 뭐지? 하는 새에 게임이 끝나버렸다. 그후엔 각자 구경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알렉스 묘지랑 밖에 나와 옆에있는 강에 갔다 강을 구경하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큰 개가 오면 무서워서 발라당 누워서 꼬리만 살랑살랑 대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그 후 시간 맞춰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묘지가 매워서 머리가 어지럽다는 말이 너무 웃겼지만 나도 똑같은 느낌이여서 헉헉 대면서 먹었다. 묘지랑 알렉스랑 함께여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다.



중간평가 느낀점

치훈

나에게 중간 평가란,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기도 설레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반가운 간사님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설렘.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내가, 말하면서 참아왔던 나의 감정들을 터트리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겁도 났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그냥 하면 되지, 라는 마음가짐이었는지 산드라 간사님과 모모 간사님이 우리를 그냥 믿어주셔서 인지 우리가 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들 때문이었을까.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끼는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이슈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공유, 어떠한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니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온 나. 그리고 어떤 활동들에 있어 인정받고 싶어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감없던 나의 모습들.

남은 시간들 더 고민하고 더 집중하고 나를 믿고 나아가는, 나의 선을 실천하기를.

중간평가 느낌점

현아

함께 하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간사님들이 오시고 나서 간사님들의 물음에 대답해야할 때가 있었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기억들이 더해져 나는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었다.
스스로를 가다듬기보다 휘젓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조차도 솔직하게 공유하고 지금의 나에 대해서,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었다. 아마 “중간 평가”라는 단어에 스스로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얼마 만에 받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였는지 모르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안마에서 그리고 눈앞에서 들으니 가슴으로 와 닿았다. 간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허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모순적이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기도 했다.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갈 용기와 에너지를 얻은 느낌이다.

나만의 방법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지만, 이 속에서 지금처럼 여유와 행복을 발견해나가야겠다. :)

중간평가 느낌점

하진

오랜만에 간사님들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하지만 중간 평가라는 이름이 주는 중압감이 있었다. 그래서 중간 평가 발표 준비 기간도 길었고, 긴장되기도 했다. 간사님들은 우리 발표만 듣고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콕콕 집어내 신기했다. 특히 우리 발표를 들으면 활동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남는다. 활동의 동기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해야 할 일들을 해치운 것 같다고 하셨다.

심지어 나는 중간 평가도 넘어야 할 산으로 생각했으니...

중간 평가 피드백을 나누면서 라온아피로서의 삶이 아닌 ‘심하진’으로서의 삶만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미얀마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여기서 나 잘 사는 것만 생각했었던 같다.

간사님 말대로 우리 팀은 정말 게으른 것 같다.^^

간사님들이 오셔서 양곤에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같이 갈 수 있어서 즐거웠지만, 일정이 너무 힘들었다. 휘몰아치는 느낌이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종희 간사님이랑도 친해졌다. ㅎㅎ 중간 평가 기간 중 감기가 걸렸는데 이 때 걸린 감기가 3주 동안 나를 괴롭혔다.

미션 팀 활동: 첫째 날

화진 say

중간 점검이 끝나고 다음날, 산드라 간사님이 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에 가자고 하셨다. 미국인들과 같이 간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때까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버스에 타고 한참을 달려 원래 가던 라인파야에 도착했다.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점심을 먹고 보호소에 갔다. 그곳에서도 선물을 주고 아이들과 놀고 저녁을 먹고 돌아왔다.

여기까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종교색이 너무 짙어서 당혹스러웠다. 그냥 보호소 방문, 아이들과의 만남보다는 선교 활동에 가까웠다. 아이들에게 이 선물은 뭘 의미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미리 그 사실을 알았다면 덜 당황스러웠을 텐데 아예 모르고 가서 그런가? 여태 해 온 활동 중 종교와 관련된 활동도 많았지만, 이번은 정말 '선교'였기 때문에 솔직히 종교가 없는 나는 강제로 특정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같이 간 미국인들이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은 정말 조금도 하지 않았고, 일은 스태프들이 다 했다. 간사님도 그렇고, 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거리는 게 솔직히 보기 싫었다. (그래서 일부러 정 없게 미국인이라고 표현했다) 버스 안에서부터 자기들이 어느 나라도 다녀오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정작 현장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피용이었다. 판 깔아 주면 그제서야 선물 나눠주고 다시 제자리로 쏙 돌아가는 모습이 얄미웠다. 이곳에서 한 활동 중 가장 회의감이 들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싶었던 활동이었다.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숙연해지기도 했다.

미션 팀 활동 : 둘째 날

한희 say

첫째 날 버스를 놓쳐버려서 미션 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는 조금 서둘러서 버스로 향했다. 차가 부족해서 우리는 택시를 타고 미국인들과 알렉스는 Y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Y 차에도 자리가 부족해 알렉스가 트렁크에 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택시 뒷자리에 4명 탈 수 있는데 거길로 데리고 올걸 그랬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간 곳은 한 성당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아마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깐 수도원 그런 느낌의 곳 이었던 것 같다. 그곳에서는 캐롤 같은 것들을 부르고 미국인들이 준비한 연극과 게임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던 한 명이 나도 그 아이들로 착각하고 나한테 볼펜을 건네줬다. 또 한번 미얀마 현지화 패치가 완료됐구나하는 뿌듯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미국인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나는 알렉스와 잠시 자리를 빠져나와 식사를 준비했다. 결혼식에서 자주 먹던 닭고기를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식사시간에는 또 일을 해야 돼서 혹시 산드라가 올까 눈치보며 후다닥 밥을 먹는 알렉스와 밥을 먹으면서 밥도 천천히 못 먹는게 조금은 상해 닭다리를 2개 먹어버렸다 밥을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는 시간에는 그곳에 아이들이 완전 적극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에 이상하게 신이나서 같이 와~~~ 하면서 설거지를 했는데 이상했던 건 한 미국인이 와서 나한테 캔 아이헬프유? 라고 말해서 나는 웰컴이라고 했는데 그냥 숨 가버렸다 웰컴이 괜찮다는 의미도 있는지 사전을 찾아봐야겠다.

여기 와서 처음 선교활동이라는 것을 경험해봤는데 무교인 나한테는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한번 더 웃게 만들고 한번 더 웃게 되는 그냥 하나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미션트립 느낌점

치훈

미션 트립을 갈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내게 이번 미션트립 단원들과 함께할 때 미션트립을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것 같다. 이곳에서 영어를 나름 자신있게 구사했었는데, 미국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앞이라서 그런지 겁도 많았고 대화할때 조금 막히면 창피했다. 산드라 간사님은 미션트립단과 함께 다니면서 매번 통역해주시는게 참 힘드시겠다고, 또 참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간사님한테 두렵다고 찡찡댔다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그들은 모국어로, 너는 충분히 잘하는 거라고. 사실 답정너였는데 응원받고 더 자신있게 대화했다.

사실 하나님을 알리러 온 미션트립단의 모습에 실망한 적도 많았다.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미션트립단의 모습은 물질적인 것의 제공과 준비한 프로젝트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모습이 사실은 조금 아쉬웠다. 먹은 밥의 그릇을 닦는 것도,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YMCA직원과 우리였다. 내가 미션트립 단원으로 왔으면 깨닫지 못했을, 뒷면. YMCA의 직원과 가깝게 지냈으니 더 잘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생각했다.

미션트립단원 보다 더 힘들었을 산드라 간사님과 떠난 총장님이 대단했다. 매 활동 따라다니시며 통역하고 활동을 도와주고, 또 껄로까지 같이 다녀오시자마자 네피도로 가서 국가행사에 참여하시는데 보는 내가 다 피곤했다. 그 와중에 아팠던 우리를 걱정하셔서 들러서 약챙겨주는 엄마같은 모습은 참으로 감사했다.

미션트립 느낌점

현아

미션 트립은 정말 갑작스럽게 전날 전해들은 일정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시간이 변경되어 10분 안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산드라 간사님이 바쁘신 건 알지만 일정을 조금 더 일찍 확실히 공지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던 활동이었다.

나는 3일 내내 미국인 분들과 일정을 함께했는데 가까워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았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누며 한국에서의 나, 미국에서의 그 분들, 그리고 미얀마에서의 우리에게 대해 서로를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었다. 물론 영어가 서툴러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표현해내기 어려웠지만 미얀마에서 내내 그래왔듯 언어 한계가 상대방과 나의 관계의 장벽이 되지는 못했다.

며칠 동안 함께하며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었다. 매 장소마다 미션 트립단과 양곤Y가 대접하는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같이 따라간 y스태프나 그곳의 아이들이 했었다. 손님이었지만, 아이들까지 모두가 자신이 먹은 것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신의 것은 스스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아끼고 축복해주시는 모습, 무엇이든 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던 시간이지만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때때로 있었던 듯하다.

또 미얀마에 와서, 왜 종교가 없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분들에게서도 받았다. 사실 이 활동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로 가보니 생각보다 종교색이 짙었고 나중에 이게 미션 트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다른 분께서 내게 종교를 물으셨고 없다고 하니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모아 둘러싸고 기도하셨다. 사실 나의 행복을 소망해주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기도를 듣는 상황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다양한 종교를 경험해보고 싶은 나이지만 천천히 나의 의지로 들여다보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션트립 느낌점

하진

갑작스러운 기회로 보육 대신 미션트립에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 사실 같이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미션트립 팀 뒷바라지 하러 간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같이 다녔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런 활동은 참여해 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정말 선교봉사 활동이 이런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다. 아무리 선교가 목적이어도 명색이 봉사인데, 힘든 일은 우리 스텝들이 다 하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갔던 알렉스는 밥을 준비하고 배분하느라 제일 늦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밥을 버렸다. 피피는 자기 몸만한 미션팀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 보여서 나랑 언니가 들었다. 우리가 가방을 번갈아 가며 들고 있는 내내, 팀원들 중 아무도 내 가방이니 자기가 들겠다는 사람 없이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미션트립으로 인해 우리 스텝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며 도와주지 않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나는 미션트립 팀이랑 노는 대신 스텝들 옆에 있으면서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 노력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처음 왔을 때,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보였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어쨌든 지금도...^^ 개인적으로 미션트립 활동은 좋은 기억이 아니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



Happy Christmas

Raon Atti 18th



Yangon Y

암마팀은 양곤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띠와 양곤 Y의 따뜻한 12월 크리스마스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양곤 YMCA nursery 크리스마스 행사

중간평가보고회 당일 날, 마침 동화간사님이 오는 날이기도 했고, 양곤 YMCA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잔치이기도 했다.

그 전날 밤 간만의 폭식으로 인해 또 새벽에 배가 아파서 아침 일찍부터 참석 하지 못했었는데 괜찮아지고 나서 바로 내려간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진짜 쇼킹이었다..

보수적이라고 느꼈던 미얀마사회에서 아기들 크리스마스 파티에 서는 미스터&미세스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남자아이들은 **보디빌더 컨셉**으로, 여자아이들은 **미스 미얀마 컨셉**으로 옷을 차려입고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면서도 한국이었으면 부모님들 난리 났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은 내가 더 보수적이었나보다

진짜 애들도 부모님이 시킨건지, 본건 많은건지, **포즈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다.**





이후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계속되었는데
눈 사람 옷을 입은 엘리 아웅,
공주 분장한 풋 산다 꼬.
정말 너무 귀여웠다.. 이런 것이 **심. 쿵. 사** 아닐까



그리고 이어진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나눔 시간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신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들의 산타 이 한 희 선생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정말 너무 덥고, 오버해야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도 오랜시간 놀아주기 힘들고
좋다고 달려드는 아이들과 총 쏘는 척하면 맞는 척 연기하는 것

이한희,
인정 한다. 잘 했 다.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송



<아이들과의 크리스마스 캐롤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

중간평가가 끝난 다음날, 산드라 간사님이 미션 트립팀과 함께 고아원과 순간의 잘못으로 오게 된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은 같이 가자고 하셔서 네! 하고 모두가 가기로 한 다음날 10시!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 9시 반에 울리는 전화 소리에 깨서 지금 내려오라는 소리에 부랴부랴 준비하고 9시 40분에 내려가기 전 한희와 동시에 온 화장실 신호에 10분을 늦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미 출발해버린 현아 하진 화진과 산드라 간사님, 미국 미션 트립팀.. 진짜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10분 동안 둘이서 멍 때리다가 오늘 우리 뭐하면 되냐고, 했더니 직원들은 그냥 쉬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너무 죄송했고,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오늘 행사를 물어보니, 마침 오늘 *직원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기에 그곳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참석한 예배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침 묘지가 인도자여서 편함과 동시에 몇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는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눈 감거나 찬양할 때 서있는 타이밍도 눈치껏 하지도 못했다...

마침 그곳에 계신 에피 YMCA선생님이 오늘 캐롤 행사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요청에 오히려 감사해서 제쥬핀바대!!! 했다



- 직원예배 - YMCA 직원끼리 인도자를 번갈아보면서 매 주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의 캐롤 송 행사는 나의 유치원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유치원 다닐 때에 할로윈 데이 행사로 근처 마트에 들어가서 trick or treat을 외치면 사탕을 나눠주곤 했던 그 행사처럼, 양곤 YMCA 직원 분들 사무실에 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옆 마트, 미얀마YMCA에서 아이들의 “MERRY CHRISTMAS TO YOU ALL!” 를 시작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나와서 아이들에게 줄 과자 또는 찬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어지는데 10시부터 3시 가까이 진행된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기타선생 묘지.

그렇게 5시간 동안 같은 노래와 패턴을 반복하며 점심도 거르면서 진행하니 안 지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나를 즐겁게 한 노래를 받고 나서의 SAME TO YOU 라는 말, 누군가에게 받기 위해 메리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건 아니지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전달해주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물론 아주 에너지틱한 아이들이 야외에 나가니 정말 업되어서
주체가 안되니 선생님께서 처음엔 *서울구경 으로 잡으려고 하셨으나,
그 아이들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탕탕볼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탕탕볼 그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 서울구경 - 구렛나루를 하늘방향으로 잡아 땡기는 체벌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송

치훈 say



아이들만 캐롤 송만 했다고 생각하면 양곤 YMCA가 아니다.
* ALL STAFF YMCA 캐롤 송데이가 있었으니,
시작은 가볍게 아이들의 코스대로 주변 가게들과 미얀마 YMCA 앞에서
“MERRY CHRISTMAS TO YOU ALL!” 로 시작한 크리스마스 캐롤 송
을 부르기 시작하면 나와서 찬조금을 주시고 노래가 끝나면
WE WISH A MERRY CHRISTMAS!로
우리의 캐롤을 마침과 동시에 돌아오는
SAME TO YOU라는 말, 참 기분 좋았다.

- ALL STAFF YMCA - 은퇴한 YMCA직원들의 집들을 들러 성탄절을 축하하는 날



아이들의 캐롤송과는 클래스가 다르게, 버스를 대절하여 이용했다.
15군데 정도를 도는 코스가 있고, **처음엔 역시나 신났다.**
버스 창문을 열고 버스 안에서 우리의 기타소리와 함께
피피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었던 영어로 번역된 미얀마 캐롤 송 대본을
읽어가며 한 곳 한 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지나가는 미얀마 인들에게 메리크리스마스!! 라고 외칠 때마다 신이 났다.
음식을 대접해주셔서 오랜만에 모헝가도 먹고 그곳에서 휴식을 좀 취했다.

그것도 얼마 안돼서 9시가 되고, 10시가 되는데 지치기 시작했고
기타치는 친구들의 손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차 몇 명씩 이번엔 쉬어야겠다며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데
새벽 1시가 되다보니, 우리의 노래를 받기위해 주무시지 못하는 집주인분들과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캐롤을 부르는데 지치는 우리,
누구를 위한 캐롤행사인가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리고 그것을 신나하는 자리임에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사실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냥 함께 노래부르며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좋았는데,
나에게 역시는 역시. 적당한 게 최고다.

분명 캐롤행사는 너무 좋은 취지고 재밌었고 기쁜날인데,
모든 활동이 시작은 즐거워서 끝날 때 즈음 너무 지쳐있는 나를 보며 안타깝다.



양곤 City Christmas

“ 12월 23일~25일 ”

양곤 YMCA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양곤에 사는 정선 시티와 세인트 메리 성당까지의 도로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 무대를 설치하는 시티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는데 양곤 ymca가 행사의 스폰서로 참여해 무대를 지원하고, 무대 옆에서 자선 부스를 설치했다! 시티 크리스마스는 12월 23일, 24일, 25일에 열렸는데 ymca는 3일동안 저녁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여 부스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대접했다.

사실 12월 21일부터 널서리 아기들 방학이었고, ymca 호스텔을 제외한 오피스 스태프들의 연휴가 시작되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스태프들과 아기들이 즐거운 휴식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는 행복이었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당분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시티크리스마스 행사에 널서리 선생님들과 모든 y직원을 만날 수 있었고 반갑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23일, 아침부터 ymca는 분주했다.

23일에 대접할 음식은 “생선죽(응아센표)”이었다. 스태프들은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ymca 구관 4층 주방에서는 음식을 조리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티크리스마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어떤 행사고 어디서 언제 시작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산드라 간사님이 연말에 많은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뵙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스태프들에게 물어 물어 어떤 행사겠구나 하며 어렵듯이 상상해보는 정도였다. 언제 부스로 가는지 몰라서 미리 리셉션에 내려가 스태프들과 함께 있었는데 묘지 엄마 마메리가 있었다. 캐피에게 머리를 땡아주고 계셨는데 옆에 있던 나도 해주셨다.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산 머리피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마메리가 예쁘게 머리를 해주셔서 머리피는 다음날에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항상 나를 보면 반갑게 이름 불러주시는 마메리가 최고다♥ 손재주도 최고다 ♥

리셉션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시티크리스마스 장소로 출발하는 우모꼬, 꼬즈웨를 만났다. 언니 오빠들은 저녁을 먹고 올 예정이어서 쪽지를 남기고 스태프들과 갔다! 행사 장소에 가니 널서리 선생님들부터 반가운 얼굴이 많이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니 정말 행복했다. 연말에 마음이 풍족해지는 기분일까...? 마메리가 해주신 머리 덕분에 칭찬도 많이 받았다!!

사실 크리스마스 연휴 전 주에 고열과 복통으로 널서리에 가지 못한 날들이 있었다.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가웠고 선생님들께서 내 건강을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했다.





시티 크리스마스 행사에는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아띠 클럽 멤버 서연이다! 서연이는 우리 아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 시티크리스마스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며 부모님과 함께 왔다. 저녁 시간부터 시작된 ymca 자선 부스에서 우리는 생선죽에 순가락과 고명을 올리거나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교통정리를 했는데 서연이도 같이 일손을 도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계속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와중에도 마주치는 스태프들과 웃음을 나눌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티크리스마스 행사가 새롭고 즐거웠던 나와 달리 지쳐 보이는 스태프들도 많았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시장과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밤 열 시까지 일을 하는 것도, 의자와 테이블 같은 물건들을 나르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든 일 일 수 밖에 없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ymca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들은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기보다 duty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았다. 그렇게 점점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고 지금을 즐기기 어려워지는 나를 발견했다.



p.s. 옆에 언급된 Y캐롤 행사는 사실 모든 멤버가 힘들어한 일정이었다.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사실 난 넘나 즐거웠다.헤헤 매년 하고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목청 높여 노래부르는 것도, 집집마다 준비해주시는 맛난 간식도 최고였다. 솔직히 마지막 집이라고 했을 때 슬펐다. 이 행복한 시간이 끝이라니... 밤새도록 캐롤 부르고 싶다.

그러다 문득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열심히 부스 일을 하고 스태프들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에 감사하기로 했다. 부스 옆 무대를 같이 즐기며 캐롤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열심히 스태프들과 셀카도 찍고 노래에 맞춰 춤추기도 하면서 톡톡히 웃음을 나눴다. Y 캐롤 행사 때 몇 시간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꽤 많은 캐롤을 외워둔 게 도움이 됐다. 내가 어설프게라도 미안마 캐롤을 부르면 같이 불러주며 스태프들이 좋아해줬다 ☺

24일의 메뉴는 생선과 각종 야채 고명을 올린 밥(응아 터민)이었다. 사실 나는 생선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 살~짝 아쉬운 메뉴였는데 스태프들은 다들 맛있다고 했다. 닥터 다난 총장님께서 생선을 매우 좋아하셔서 매주 직접 수산물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오시고 Y 냉장고를 열심히 채워 놓으신다 하는데, 총장님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메뉴 선택이 아닐까 싶었다. 총장님이 나와 음식 취향이 맞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틀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서빙하고 정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스태프들과 주변 거리를 나들이하기도 했다. 캐피, 퓨퓨와 함께 세인트 메리 성당을 구경하기도 하고 뎀자민, 치훈, 누누투이, 펜시와 함께 기차역과 루비마트 위 다리를 가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끼고 함께 더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어떤 스태프 말로는 이렇게 한번 나가줘야 제맛이라고 했다. (나름의 일탈) 그리고 실제로 거리를 거닐면서 삼삼오오 시티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던 Y 식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hyuna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날들이었다.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장난을 치고 내 손을 잡고 같이 무언가를 하자고 말해주는 Y식구들의 애정에 항상 감사하다. 한 명 한 명 Y식구들을 새로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재밌고 내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해줄 때마다 감동받는다. 여담이지만 미얀마어로 “현”이라는 글자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미얀마 친구들은 현아라는 내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 사실 아직까지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내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다. 그래서 hyuna를 연음으로 읽어 “휴나”라고 나를 소개한다. 그래서 Y식구들은 물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은 나를 모두 휴나~ 라고 부른다. 제2의 이름이 생긴 기분이라까? 하지만 휴나마저도 발음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 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게 속상했는데 한 두 번 더 얼굴 비추고 인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억해주니까 괜찮다~ 한국 돌아가면 모두가 발음할 수 있는 쉬운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다. 루나 간사님처럼!!



City Christmas

Lastday



현아 say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12시에 아피클럽 멤버인 보미와 누누가 YMCA로 직접 찾아왔다.
 보미와 누누는 직접 아피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만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좋을지 하나 하나 고민했을 정성에 감동받았다. 액자, 수첩, 초콜릿, 귀여운 양초까지 아기자기한 선물이었다.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보미, 누누와 같이 사진을 찍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함께 점심 식사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선약이 있어 나중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보미와 누누가 간 뒤 서연과 부모님께서 YMCA로 찾아왔다. 크리스마스 기념 점심 식사에 초대받아 서연의 집에 놀러가기로 했었다. 집에 가니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 해주셨고 난지뚝이라는 미얀마 음식을 대접 해주셨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아피들 모두 맛있게 먹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다는데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셔서 맛없을 수가 없었다. 부족하지 않게 계속 신경써주셨고 식사 후에는 미얀마식 후식을 준비해주셨다. 무지개 젤리, 코코넛 젤리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난지뚝을 잔뜩 먹은 우리는 배가 차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ㅋㅋㅋ 서연 집에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도 나누고 가족 앨범을 보기도 하고 서연이 좋아하는 워너원 앨범도 구경했다. 이렇게 우리를 집에 초대해주고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현아 say



시티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날 음식은 우유를 베이스로 한 국수였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담백하고 걸쭉한 국물이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유독 손님이 더 많았는데, 그 전날들보다 거리에도 사람이 많았다. 손님이 너무 붐비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자리가 없어 서서 먹거나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지기도 했다. Y식구들도 정말 바빠 움직였고 나중에는 3타임으로 나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무대에 유명한 가수가 오기도 했는데, 미얀마 레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쏘 푸과”가 왔다. 사실 나는 잘 모르지만 노래가 흥겨웠고 하하같은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셨다. 쏘 푸과가 왔을 때는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 그 주변을 이동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리고 우리 YMCA 뮤지션 “예위아오”의 무대가 있었다. 예위아오가 직접 무대에 올라 흥겨운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 호응도 유도하고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거의 슈퍼-스타였다. 치훈오빠, 묘지와 무대 정면에 서서 같이 박수도 치고 환호하며 예위아오를 응원했다.

2018년의 크리스마스는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였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챙겨본 것도, 분위기를 제대로 즐겨본 것도 처음이라 신기했다. Y 식구들과 함께 해서 더더욱 행복한 하루였다. 따뜻한 크리스마스도 처음이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모두에게 고맙다! ☺

merry Christmas! happy Christmas!



크리스마스 느낌 점

화진

아... 크리스마스... 지옥의 캐롤 높이 잊혀지질 않는다... ㅋㅋㅋㅋ 캐롤의 늑! 캐롤의 올가미! Y 식구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다니는 건 재밌긴 했는데 힘들었다.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죽음? 싶었다. 캐롤 행사 때 기타를 쳐준 묘지랑 서로 힘드니? 나도!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재밌었다. 시티 크리스마스 행사 때는 설거지를 했는데, 이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중간에 그릇이 너무 많아서 허겁지겁 닦던 중 처음 보는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 사람들이랑 정신 없는 와중에도 참 많이 웃으면서 했다. 여름이라 내가 매년 느끼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지만 색다르고 재미있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희

미얀마에서 평생 부른 캐롤보다 더 많은 캐롤을 여기서 부른 것 같다. 매일 매일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치도록 나는 12월 이었다.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던 캐롤 지옥도 아이들과 함께 한 크리스마스 파티도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시티 크리스마스도 모두 새롭고 재밌는 기억이었다 특히 산타 분장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춤춘 건 정말 재밌었다~~

크리스마스 느낀 점

하진

많이 기대했던 크리스마스! Ymca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아래 정말 많은 행사를 했다. 좁지 않아서 그런가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기분은 별로 없었지만, 스텝들과 함께 있는 건 항상 즐겁다. 익히 들었던 캐롤송 부르는 행사는 정말... 대단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안마 캐롤은 따라 부르기 힘들었고, 밤 내내 이어진 강행군에 나중에는 끌려 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중간에 알렉스, 한희와 몰래 나오기도 했다...^^

시티 크리스마스는 3일 동안 진행됐는데, 부스에 손님보다 스텝들이 더 많은 기분이었다. 첫 날은 모두 사람들이 차 있어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 지도 모르겠고 멀뚱히 서 있으니 재미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날은 걱정하고 언니와 설거지 자리에 앉았다. 스텝들이 하신다고 해도 절대 비켜주지 않고, 의자에 앉아 쉬라고 해도 괜찮다고 바닥에 앉아서 쉬며 설거지 자리를 사수했다. 우리의 도움으로 스텝들이 조금이라도 쉬셨으면 좋겠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 밀려오는 설거지를 바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셋째 날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설거지를 도와줬는데, 끝날 때까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왜 도와주신 거지...? 그래도 그 분과 과자도 나눠먹고 사진도 찍으며 훈훈하게 마무리 했다. 설거지하는 큰 대야에 엄청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소소한 힐링 거리였다.

12월 보육

하진 say

으악~~ 이번 달도 어김없이 찾아온 보육 시간!!
원래 보육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이지만 이번 달은 중간 평가, 미션 팀, 씨티 크리스마스 행사로 2주만 다녀왔다.

Part1. PCM-교통, 화재

이번 주는 꺄로에서 부터 이어온 pcm 보육의 마지막 시간으로, 교통 안전과 화재 대피 교육을 했다. 특별히 이번 주 라인파야 보육은 중간 평가를 위해 머나먼 광주에서 오신 모모와 함께 가서 우리가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도 꺄로에서 한 번 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산드라 간사님도 동행하면서 우리의 소통을 도와주는 묘지가 못 가게 되었다. 우리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설명해주시고, 선생님들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산드라 간사님이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

라인파야 보육을 갈 때, 산드라 간사님이 '나는 버스 못 태!'라고 선언하시고, 차를 빌리셨다. 그러나 차가 좁아 뒷 자리에 앉아있는 모모와 우리 5명은 딱 붙어 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나는 의자 두 개 사이에 그냥 베개를 깔고 앉았는데 에어컨이 너무 추워 힘들었던 반면, 맨 뒷 자리는 너무 더워 힘들어했다. 오죽하면 차라리 버스 타고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모모에게 미안마에서 왕복 4시간이 넘는 버스를 태워주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더 힘든 경험이 되어버렸다.^^



12월 보육

하진 say



교통 안전 보육으로,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 건너는 연습을 하였다. 특히 아이들은 이 연습을 굉장히 좋아해서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원래는 우리가 연습을 위해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데,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줄 서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고마웠다.

우리 팀 중 한 명과 아이 1~2명, 아이들끼리 손잡고, 선생님과 아이들 등 모두 참여해 풍부하게 연습할 수 있었다.

교통과 화재는 아이들과 연습이 주를 이루었다. 옷으로 입을 가리고 연기 아래로 몸을 낮춰 기어가야 하지만, 마냥 신나서 그냥 기어가는 아이들이 많아 자세를 다시 잡아주며 다녔다.

중간에 불뚱이 몸에 튀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구르는 연습을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만약 이해 못하면 우리들이 불뚱이라고 던지는 빨간 종이뭉치들을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했다. 그냥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즐거워 보였다. ㅎㅎ 그리고 연습 후 던진 불뚱들을 모아 다시 가져와 주는 고마운 아이들도 있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바닥을 기어가며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다.



안 돼.돌아가. 안 바뀌줘. 빨간 불이야 (근엄)

pcm 교육 이후에는 점심 먹기 전 아이들의 손을 씻겨 주었다. 위생 부분에서 배웠던 6단계 손 씻기를 착실하게 따라 하며, 깨끗해지는 손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유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손 씻기를 명목으로 한번에 많은 물을 사용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위생은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모두 씻겨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라도 한명씩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물이 부족해 못 할 때도 몇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최대한 물을 빨리 잠그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진 say

12월 보육

하진 say

Part2. 동물 보육과 크리스마스 모자이크

원래 동물 보육은 껄로에서 하기 위해 10월에 준비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결국 못하고, 12월이 돼서야 개봉했다. 동물을 따라 그리는데 생각보다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놀랐다. 현아와 힘을 합쳐 고퀄리티의 보육 자료를 완성하여서 뿌듯했다.

이번 주 보육은 치훈이가 진행했는데, 항상 '독수리'에서 뽕사리가 났다. ㅎㅎ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한국어와 영어도 열심히 따라해 줘서 잘 끝낼 수 있었다. 선생님들도 한국어를 메모해가며 우등생의 면모를 보여주셨다.



껄로에서는 보육 내용에 맞춰 동물 모자이크를 진행했는데, 이번주는 올라프, 산타와 루돌프, 트리 등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했다.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었지만, 왜인지 나중에는 어른들만 남아서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단순한 형태의 눈사람과 트리가 아이들이 완성하기에 더 좋은 것 같다. 복잡한 그림은 완성 후 그 형체를 잃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들이 한 것이므로 못생겨도 자랑스럽게 벽에 걸어 놓았다.



12월 보육

보너스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 귀여운
아이들 사진 더 보고 가세요~

하진 say



보육 느낀 점

화진

오~ 보육~ 나는 12월 내내 보육으로 괴로워 했다...
보육 생각만 하면 거짓말처럼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
이 쭉 빠졌다. 애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정말 조금
이었고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이 소감을 쓰
는 지금은 1월인데 나는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애들아
우리 보육 쉬면 안 돼?라고 물어봤다. 그래도 지금은
체념 상태라 가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에 스
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싶다. 힘내야지... 힘 안 내
면 어찌겠나...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애정 없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다. 나름 애정은 있다.
다만 힘들 뿐 ^^... 사랑해 애들아...

한희

12월은 보육이 얼마 없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조금은 귀찮아 질 때 쯤
연말이 되서 보육을 얼마 안하니
아이들이 보고 싶어진 거 같기도 하고
다시 보육을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 같다는 기
분이 든다. 이제 다시 1월 7일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
하면 얼마 안 남은 보육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내 목표는 내 편애를 독차지하는
혼다엘리가 (애기 어그로)
마지막에 헤어지기 싫다고 울게 하는 거다
파이팅!!

보육 느낀점

치훈

아이들에게 필요한 위생교육에 이어서 재난,교통 관련 안전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조금은 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하기 바랐다.산 에서 각자 보육파트를 맡아 진행했기에 그 보육진행자가 책임을 맡고 쪽 활동했기에 다른 팀원들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 나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 시기 팀원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 보육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했는데 확실히 보육 전체를 맡으려니 책임감이 커지고 대본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의 소통이 더 수월해졌던 것 같다. 마침 이번 보육주제가 동물이름 배우기여서 그런지, 아이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좋았고 나서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서 달라붙고 괜히 더 큰 목소리로 반박자 빠르게 말하는 모습들이 마냥 귀여웠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재밌었다. 이 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와 크리스마스 트리 모자이크를 준비했는데 확실히 모자이크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버거웠던 활동임을 깨달았다.찢고 던지는 아이들, 관심 없는 아이들, 너무 크게 찢는 아이들.. 결국 우리 팀원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준 활동이었다.

사실 어떤 보육을 해도,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번 보육은 팀원들 몸 상태가 안 좋고, 지친 체력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보육 느낀점

현아

우리 아기들이 너무 보고 싶다. 12월에는 중간평가, 미션트립 등 행사도 많았고 크리스마스부터 쪽 아이들 방학이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이따금씩 아기들이 보고 싶을 때면 혼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데 마냥 귀엽고 때로는 심술궂은 모습에 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진다.

벌써 1월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쉽겠지만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은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을 듯하다. 11월부터 보육에서의 내 목표는 귀찮음과 게으름 이겨 내기였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좋아하는 나이지만 준비한 수업을 끝마치고 나면 지쳐 침터로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후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생각보다 나의 귀찮음과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내 몸이 편했던 순간보다 마음이 풍족한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기에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어서 우리 아기들 만나고 싶다!!!!!!

아띠클럽

하진 say



아띠클럽 3회차, 나들이 가다

아띠 보미씨의 의견으로, 미얀마 민속촌에 가게 되었다. 민속촌은 8개 민족의 가옥과 생활 모습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갔다. 굉장히 넓어 원래는 자전거를 여유롭게 타며 하하호호 다닐 생각이었지만, 한 소수민족 축제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전거를 탈 수도 없었다. 2시의 땡볕과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빠르게 지쳐갔고, 결국 몬 족만 둘러보고 서둘러 앉을 곳을 찾으러 떠났다.

여러가지 생활 용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설명이 없어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었다. 영어 설명이 같이 있다면 외국인도 미얀마 민족들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보카도 주스를 마시며 앉아있는데, 뚜뚜와 새로운 친구들이 합류하였다. 어떻게 오신 분들 모두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실까 ... 너무 신기했다.

민속촌을 나와 현아는 아파서 먼저 들어가고, 뚜뚜가 소개해준 일식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오랜만에 초밥을 먹기도 했고, 가성비도 좋아 맛있게 먹었다. 한희가 정말 좋아했다.

집에 돌아와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감기로 인해 원래 좋지 않았던 몸이 결국 몸살이 나서 해열제 먹었다.ㅠㅠ

조금 더 시원하고 사람이 적을 때 다시 와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재미있을 것 같다. 미얀마 민속촌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 아쉽다.

아띠클럽

하진 say

아띠클럽 4회차, 팔찌 공방 차리다.

광주 국내 훈련 중 가족 공방에서 라온아띠 팔찌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모모가 현지 선물용으로 100개를 더 챙겨주셨다. 그래서 이번주는 아띠들과 팔찌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원래는 팔찌를 만들며 아띠들과 미얀마 사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계획했다. 하지만 막상 만들어보니 너무 집중하게 되어서 결국 이야기 나누기는 다음 시간으로...



손목에 맞춰 가죽을 자르고, 망치를 이용해 똑딱이를 달고, 간단한 바느질에 5명이 나눠 들어갔다. 아띠들은 자신의 팔찌를 만들어 본 후, 마음에 드는 곳으로 들어가 분업을 시작했다.

약 3시간에 걸쳐 팔찌 100개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아띠들이 지루한 기색 없이 재미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띠 클럽 느낀 점

화진

음~ 아띠 클럽~ 막 어색하게 만난 게 최근 같은데 벌써 헤어질 때가 코 앞이다. 사실 이렇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은 내가 불편해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인데 ㅋㅋㅋ 그래도 우리 팀에게 항상 친절하고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얀마에 대한 걸 알게 되는 것도 나름 소소한 재미이다. 얼마 안 남은 시간 힘들지 않게 잘 보내고 싶다.

한희

이번 아띠클럽은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었다
우리 시간외에 따로 같이 놀기도 하고
평일에 약속을 잡기도하고
비록 지켜지지 못했지만...
다들 한국말을 잘해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만날 수 있었고 만나러 와줘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아띠클럽이다.
지금으로서 나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로 조금 더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재밌는 시간이다.
이제 2번 정도 남은 시간
아띠클럽 친구들과 더 좋은 친구들이 될 수있게
힘내서 재밌게 보내야겠다

아띠클럽 느낀점

치훈

우리들의 구체적이지 못한 야외활동 계획으로 또, 특히 내가 아띠클럽 만남공지에 날짜를 올리는 것을 잊어 우리팀원과 아띠클럽 멤버들을 혼란시켜 너무 미안했다.

그렇게 그 다음날 급하게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띠클럽 멤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줌에 너무 고마웠다.

아띠클럽을 할 수록 멤버들이 우리에게 대한 애정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한국에서 외국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한 달, 고작 3번만나고 이런 정성과 관심을 쏟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닌데.

너무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참으로 이전 기수들의 노력들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 노력을 이어가고 싶다.

마침 민속촌에 간 당일날 행사당일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았던 점, 야외라서 늦게 온 멤버와의 시간이 짧았던 점, 우리팀원들이 아파서 힘들어했던 점. 이번 달 아띠클럽은 너무 아쉬웠다.

참 주책이게도 아띠클럽 멤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다.

점차 다가오는 귀국 날이 기쁘지만은 않은게 이제 정말 만날 일이 얼마 없다는 것.

한국말을 참 잘하는 뚜뚜가 미얀마에 오는 한국인들을 만나면 도와주면서 하는 말

“ 아무것도 안주셔도 되니,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 많이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전에 이들에게 나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겠다.

아띠클럽 느낀점

현아

12월은 아띠클럽 멤버들의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었던 달이었다.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떨어져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생각해주는 아띠 멤버들에게 고맙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할 때도 많다. 우리 아띠클럽 멤버들은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해서 거의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연예인, 드라마 등 관심사를 계기로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

다만 요즘 속상한 부분은, 나에게 아띠클럽이 하나의 의무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멤버들 모두를 아끼고 애정하기에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시간들이 정말 좋다. 하지만 전체가 되어 꽤 많은 숫자가 모이고 나면 괜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끌어야한다는 부담감이 드는 것 같다. 아띠클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이기에 함께 활동해나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아띠클럽이 끝나고 나면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나를 발견한다.

앞으로 아띠 클럽 멤버들과 추억을 더 쌓으면서
아띠 클럽의 의미를 천천히 다시 되새겨야 할 것 같다.

산드라 간사님과 의 시간



치훈 say

1. 산드라 간사님 가족 커렌족 결혼식

벌써 세 번째 결혼식 초대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결혼식 초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곳에서 4개월 동안 3번의 결혼식을 초대받았다는 것, 그만큼 신경 써주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사실 결혼식에 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미얀마어를 공부하고 조금 들을 수 있다 해도 설교나 주례사를 이해하기엔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결혼식이 2시간씩 이어지다보니 피곤함에 졸곤 했던 것 같다.

이번 결혼식도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초대받았던 결혼식과는 다르게 커렌족의 전통 결혼식이었다는 것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대해준 산드라 간사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덕분에 산드라 간사님의 가족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게 재밌었다. 가족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근사한 빵집가서 디저트타임이 있었으니 사실 그게 제일 행복했다.

연말이 되기 전 산드라 간사님과 밥 한끼 먹고 싶다는 제안에 너무나 좋아해주신 간사님에 오히려 감사했고 12월 31일 집에서 하는 연말파티에 초대 받았다.



산드라 간사님과 의 시간



현아 say

2. 산드라 간사님 집에서 연말 파티.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산드라 간사님 집에 초대받았다! 산드라 간사님께 드릴 선물을 산 후(치즈 케이크) 집으로 향했다. 집 앞 마당에 아기자기하게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가족들은 분주했다. 사실 우리가 간사님 집에 오기 전에, 묘지와 알렉스는 아침에 간사님 집에 들러 준비를 도왔다고 했다. 아침부터 이리저리 고생했을 묘지와 알렉스를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아팠다. 산드라 간사님이 묘지와 알렉스를 아들처럼 여기시기에 집안 행사, 결혼식 등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애정을 잘 알고 있지만, 준 명절 수준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꽤나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종 닭고기, 닭발, 소고기 꼬치와 옥수수, 핫팟, 짜센쫐, 어묵이 있었고 럼과 과일을 섞은 맛있는 술이 있었다. 라온아띠 13기 미얀마팀인 한솔 언니와 태규오빠도 초대받았는데, 덕분에 미얀마에서 아띠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다. 한솔언니와 태규오빠는 미얀마어 능력자여서 유창하게 미얀마어를 하는 모습이 부럽고 멋지기도 했다. 열심히 굽고 먹다보니 어느새 8시가 다되었고 산드라 간사님과 가족분들과 미리 새해 인사를 나누고 기분 좋게 Y로 돌아갔다. 항상 우리를 딸, 아들 처럼 여겨주시는 산드라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다.

HAPPY NEW YEAR

지훈 say

뽕센세이야 흐닛땃바

이제 진짜 반 오십이다.

음,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싫었던 적은 처음이다.

피곤한 팀원들도 있어 현아와 나는 야외에서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다.

매 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또는 교회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새해를 HOT PLACE에서 보낸 것은 처음이다.

이곳 까지 가는 길은 진짜 험난했다.

묘지와 알렉스가 12/31은 미얀마 인들의 술 먹는 날이라고 한 상황이 눈 앞에 펼쳐졌다.
소리지르는 사람, 길 바닥에 드러 눕는 사람, 눈빛이 썩한 사람, 춤 추는 사람.

아, 그냥 숙소에서 잔잔하게 맞이할 걸 그랬나 했던 마음은, 도착해서 사라졌다.

미얀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듯한 이곳은 kbs 가요대축제 처럼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부르고 있었고 TV에 그대로 방영되고 있었다.

EDM에 맞춰 소리지르고 춤추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되는 발라드파 묘&알, 노래도 맘에 안 들었고,

이 취한 사람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발을 7번이나 밟혔으니...

앞으로 살면서 카운트다운 미얀마어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날이지 않을까

뽕센세이야 흐닛땃바 를 외치니 그제서야 묘&알 표정이 풀리면서 탐정놀이를 하게되는데..



무서움 주의



새해 맞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셜록 묘지, 알렉 홈즈, 셜록 치훈, 현아 홈즈



택시비 폭등으로 걸어가기로 택한 우리 넷은 지나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공야를 뺀 것인 줄 알았던 빨간 자국이

흘린지 얼마 안 된 마르지 않은 **피** 였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두 발자국 마다 있는 피 자국을 따라갈때 마다 더 생생한 피.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의 행태를 추적하고 탐정이 되어 추리했다.

셜록 묘지 : 술에 취한 사람이 칼에 찔려 도망가는 것이다



알렉 홈즈 : 술에 취한 사람이 휘청거리며 피를 흘렸다 (피 자국이 오른,왼을 반복)

셜록 치훈 : 살인자에게 찔려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쫓아가면 우리도 죽는다.

현아 홈즈 : 개가 흘린 피자국이다.

그렇게 추적한 끝에 피가 묻혀있는곳을 보고 아 잠깐 그가 쉬다가 다시 갔다는 것을
캐치한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추적해나갔다.

그리고 마주한 네 갈림길!!

직진방향으로 계속된 피 자국,

하지만 우리는 집이 오른쪽이므로 이만 끝내기로.. 무서워서가 아니다.
(다들 각자의 추리로, 끼워맞춰보시길...)



김치훈의 2018 라온아띠 돌아보기 1

12월도 끝났다. 머리로 많이 길었다.

머리를 정말 망했다는 말이 정답일 정도로 이상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앞머리가 사랑이 보다 짧았었는데 벌써 눈썹을 찌르고 있다니.

이제서야 스태프들과 대화를 좀 해보면서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 나도 그들의 이름을 외웠다.
지나가다가 만나도 오 밍글라바! 로 끝났던 우리의 대화가 오!! 쏘사케우~ 까웅도 마넛바
같이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했다.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이전부터 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그냥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했다.
12월의 키워드를 집중이라고 잡은 이유는 사실 내가 집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걸
알기 때문에. 또 조금은 그러고 싶었기에. 12월에 온전히 집중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계속 나에게 주문을 했던 도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직원들과 더
친해지고 다른 잡생각보다는 이곳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정말 이곳이 아니면 이제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미친 듯이 할 치열한 삶, 이곳에서 잠깐 버리고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중간평가 동안 정말 한 없이 돌아다니고, 먹었다. 먹는 행복을 맘껏 느꼈다.
간사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무거웠었던 나를 조금 내려놓았고 감사함을 느낀 순간들이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엉킨 실타래들을 푸는 방법을 배운 느낌이었다.
방법을 안다고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방법을 안다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시도한다. 이제 시도할 기회도 점점 사라지는데 더 자주 시도해야겠다.

이번 보육 아이들과 함께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했다는게 신났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로 아이들의 방학이 너무 길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
아쉽지 않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김치훈, 항상 안해놓고 후회하는건 여전하다.



김치훈의 2018 라온아띠 돌아보기 2



남들이 흥겨워하는 크리스마스지만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느끼는 감정은 남들이 설레는 만큼 설레기보다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한 해가 끝나간다는 느낌과 한 해를 정리한다는 느낌이어서인지 조금의 정돈됨과 우울함이 바탕이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바쁘고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이 있어서인지 평소 느꼈던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박힌 어떤 정서를 생각할 새도 없었다. 그러나 즐거웠다.

아침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 2시간을 달려온 누누와 보미로 시작한 크리스마스, 서연이의 초대를 받아 어머님께 식사를 대접받고, 시티크리스마스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에게 건네는 메리크리스마스! 누군가에게 이 말을 건네었을 때 기분 좋았다. 평상시 내가 경험했던 좁고 눈 오는 크리스마스와 달리 30도를 넘는 기온이었어도 이 날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웠기에 그걸로 행복했다. 이제껏 보내왔던 크리스마스 중 2번째로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다. (*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조명아래에서 캐롤을 틀어놓고 가족과 함께 춤추던 때다)

버스에서의 땀냄새와 버스정류장에서의 역한 냄새, 보육장소까지 들고 가는 무거운 도시락과 물,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 같으니 정말 갈 때가 다가오나보다. 꺼야라는 주를 2주 동안 가게 되었기에 12월 보고서도 급히 만들고 있었고, 양곤에 남아있는 날이 이제 정말 남지 않았음을 느끼면서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소비하며 “양곤 마스터”가 되고 있었는데 급작스러운 취소로 뭔가 너무 당황스럽고 이곳에서의 계획을 세우느라 너무 정신 없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못다한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 하면서 우리가 이제껏 해오지 못한 것들을 하면 진짜 끝이겠다.

9월, 산드라 간사님께서 말한 고작 5개월이라는 말에, 나에게 5개월은 참 크고 긴 기간이었는데 4개월 동안 한 가지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어떤 것도 크게 얻었다고 자부하지 못하는 지금. 그저 주어진 것들에만 치우치며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12월, 산드라 간사님이 이제 진짜 1달이라는 지금, 해피뉴이어를 외치며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금 라온아띠는 시작이 아닌 마무리다. 사람과의 관계 마무리, 내가 느낀 감정들의 마무리를 이제는 시작할 때가 왔다.

평화진의 2018 라온아띠 돌아보기



길고 긴 12월이었다.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을까? 아마 내가 만사에 의욕이 없기 때문이겠지... 11월 보고서에서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나는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 의욕도 없다... 이게 소진인 걸까? 생각보다 오래 가는 듯... 그런데 생각해야 할 건 또 많으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머리가 복잡해서 사실 요즘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쓰다 보니 좋은 것 같기도 하궁
ㅎ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깨닫는 날이 올 것 같다.

사실 나는 현지 간사님이 싫다. 그래... 싫다...!! 싫어한 지 좀 됐다!! (오늘 싸워서 조금 감정이 격하긴 함) 미얀마의 청년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서 정작 같이 일하는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권위적으로 하시는 것도 싫고... 이게 미얀마의 문화(딱히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함)이니 그냥 넘겨야지, 우리나라랑 배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싫다. YMCA면 이런 면에서 더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지켜본 바로는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고인 물 같다. 그러다 보니 간사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 주고 싶으셔서 부른 활동에 참여하기도 싫다. 사실 간사님이란 같이 뭘 하는 게 싫은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ㅠㅠ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가 쉽질 않다. 역시 사람 바꾸기가 제일 힘들다. 내가 너무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걸까?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이런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제 정말 한 달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아! 하고 떠오를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것과 별개로 오늘 자칫하면 분위기 살벌할 뻔했는데 날 잘 타일러 주고 ㅋㅋㅋ 분위기 잘 풀어준 팀원들한테 고맙다. 휴 마지막 소감이니까 쓴다 정말... 얌마팀 ㄱㄱ 참 많이 싸웠지만 ㅋㅋㅋ 너흰 좋은 애들이야 항상 고맙고... 고맙다... 감사감사루

이한희의 2018 라온아띠 돌아보기

12월 한 달은 그냥 편안한 한 달이었다.
미얀마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무언가 새로운 게 보인다고 보다는 그냥 평소 같은 생활들의
반복이라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중간평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좋았고
현지인 친구들과 간식들도 먹으면서
안 통하는 말로 열심히 이야기하는 시간도 재밌었다.

미얀마나 한국이나 별 다를 거 없구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냥 한국 같은 느낌으로 시간을 보낸 12월이었다.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을 조금 더 기억에 남기는
한 달을 보내고 가고 싶다.
사실 조금 지쳐서인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인지
귀찮은 건가 싶기도 하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힘내서
남은 한달 재밌게 보내고 가야지



심하진의 2018 라온아띠 돌아보기

훔냐... 각 파트 끝날 때마다 소감을 적어서 막상 전체 소감에는 어떤 말을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2월은 쉬는 날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엄청 바빴던 한 달이었다. 스탭들은 26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휴일을 재미없게 보내기 싫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언니의 추천으로 뮤지컬 2편과 영화 1편을 봤는데,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오페라의 유령을 시작으로 유튜브에서 한국 뮤지컬 노래들을 듣고 있다. 노래가 너무 좋아...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언니와 오빠는 항상 디데이를 세는데, 드디어 앞자리가 3으로 바꼈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마냥 웃을 수 없었다. 한국에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들을 마주하기 싫은 마음도 크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슴이 짝 막히는 기분이다.

뭔가 이 곳은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기분도, 새해 기분도 잘 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12월 31일 밤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카운트 다운을 하고, 곳곳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보니 '우와 새해가 왔긴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 성당에서는 종이 울리고, 곳곳에는 실튼 없이 폭죽이 터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과 같이 있던 스텝 쉐잉턴과 민민또... 항상 새해를 교회에서 보내는 나에게 한국에서도 생각날 것 같은 장면이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신 아띠클럽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만난 지 한 달 좀 넘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애정을 주시다니... 새해에 만났던 한솔, 태규씨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현아의 2018 라온아띠 돌아보기



우리 귀여운 엘리아오♥ 내가 모두 애정하는 아기들이지만, 흥만큼은 엘리 따라갈 자가 없다. 내가 카메라를 드는 날이면 엘리의 인생 샷이 잔뜩 생기곤 한다. 동물 보육을 하고 나서 나에게 조용히 새무새(앵무새)라고 속삭이던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 정말 귀엽다. 오늘은 또 와서 나에게 자기는 세상에서 무서운 거 하나 없다고 허세부리고, 미얀마 선생님한테 가서 한국말로 앵무새를 가르쳐 드렸다 ㅋㅋ

벌써 1월이다. 이 글을 적는 지금은 미얀마에서의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처음 한국에서 떠나올 때는 5개월이 꽤나 길어 보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순식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 속에서도 나는 미얀마를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우면서도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되기도 한다. 싱송생송하다.



이번 달에는 행사가 많았던 만큼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집집마다 방문해 목청 높여 캐롤도 불러보고,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에 참여해 스태프들과 함께 서빙도 해보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대를 구경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오피스를 방문하고 직접 양곤 Y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체계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 2018년의 마지막 날에는 미얀마 거리에서 다같이 새해 카운트 다운을 외치기도 했는데, 3 2 1 하는 순간에 왠지 모를 짜릿함을 느꼈고 지금 미얀마에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기도 했다. 아마 매년 마지막 날에는 이 순간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

이현아의 2018 라온아띠 돌아보기

<<양곤 Y 사랑둥이들 사진전>>



라온아띠로서의 시간들은 참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다. 한국에 돌아가 가족, 친구에게 “어땠어”라는 질문을 받으면 무슨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배우고, 느끼고, 후회하고, 즐거웠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온아띠를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현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엄청난 변화, 성장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다채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느끼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일기를 쓰거나 매월 소감을 쓰다 보면 내가 참 글 솜씨가 없음을 느낀다. 딱딱한 레포트같은 글들만 써오다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는 물렁한 글을 쓰려니 서툰 것 같다. 때로는 글이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해내지 못해 서글프기도 하다. 항상 그랬듯, 쓰다보면 늘겠지만.

1월은, 어느 달보다 더 힘차게 꾸려나가야겠다. 2월에 만나요 아띠들 :) 보고 싶어요!

으악 귀여워 줘금ㅠㅠ 링꼬꼬, 풋산다, 까친, 키터산드, 피리, 아이니까지ㅠㅠ 우리 사랑둥이들 다 모였다ㅠㅠ 언니랑 한국 가자~~~~

